

인간너머 생태평화

- 안보, 정의에서 평화로

주윤정*

국문요약

이 글은 생태평화의 핵심적 개념을 소개하고 한반도에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생태평화는 현재 평화학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이자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DMZ 등의 생태적 이용과 관련하여 생태평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소 부족하다. 생태평화의 개념은 평화학에서 생태적 문제의식을 통해 평화학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 글은 생태평화의 구성요소로 생물안보, 생태정의, 생태평화로 구성하고 이에 기반한 각 개념과 사례들을 소개한다. 생물안보와 생태정의는 소극적 평화의 측면이 있으며, 생태평화는 폭력과 파괴에서 벗어난 적극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적극적 평화의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환경을 인간이 이용하는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해 논의가 전개되었다면 이 글에서는 인간너머의 생태평화의 가능성을 다양한 비인간 생물체들을 고려하며 논의를 전개했다.

주제어: 생물안보, 생태정의, 인간너머, 다종간 정의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araby@pusan.ac.kr

I. 들어가며

‘생태평화’는 현재 평화학에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의식이자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DMZ 등의 생태적 이용과 관련하여 생태평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소 부족하다. 생태평화 개념은 평화학에서 생태적 문제의식을 통해 평화학의 문제의식을 심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한국의 일부 평화학자들은 ‘녹색평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연구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다. 기존의 논의(박명규 외 2013)들은 생태평화 개념을 통해 평화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생태의 영역에 대한 본격적 고려는 다소 부족하고 인간중심적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 이 글에서는 생태와 평화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인간너머(more than human) 혹은 다종간(multi-species)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생태평화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이 강조되는 것은 현재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차크라바티(2020)는 행성사(planetary history)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류의 진보 시기가 화석연료 사용의 확장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와 인권의 서사를 더 이상 순진하게 찬양만 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인류사회의 경제성장, 인권의 진보 등의 정치적 발전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로 인해 가능했기에, 더 이상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책임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진보와 발전은 무수히 많은 종의 멸종과 기후변화와 동시에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는 사회의 영역을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며 확장해온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범위를 지역, 국가, 지구를 넘어 행성 자체가 함께 우리의 운명공동체란 점을 새로이 인식하고, 새로운 위험과 공동체의 안전의 범위를 확장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식을 통해 새로운 종류의 평화 개념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인문사회과학에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너머 존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또한 현재 존재하는 인간과 종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고려,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고려는 인류의 도덕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 맥어스킬이란 철학자는 미래의 사람들은 현재 투표를 하거나 로비를 할 수도, 공직에 출마할 수도 없기에 현재의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지만 그들, 즉 미래

의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어떤 문화에서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앞으로의 7세대의 이익과 행복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결정이 7세대의 이익에 도움이 될지 따져본다(맥어스킬 2023: 1장)고 한다. 인간너머, 또한 현재 존재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사람들과 동물들과의 평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사회가 인간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행위자, 그리고 미래의 행위자와의 평화의 관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인간너머의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

근대 이후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정복과 극복의 역사로 인식되었다. 자연은 근대적 세계관 속에서는 자원이나 정복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계산되고 측정되고 객관적으로 인식되어 과학의 대상 혹은 인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의 생태위기와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운 평화의 개념의 창출과 더불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논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언급을 들 수 있다. “다양한 생물종들을 그저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만 여겨 그 고유한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해마다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서 우리가 전혀 모르게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전혀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매우 많은 생물종들이 사라졌습니다.”(프란치스코 2015, 33)는 그의 주장은 인간과 동물, 자연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동물이나 자원을 단순히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등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인간이 동물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했다. 이는 인간이 피조물인 동물을 지배할 권리를 가졌다는 기존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물 자체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현재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멸종 등의 상황의 심각성은 단순히 현재 존재하는 인간과 생물체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후 미래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평화에 대한 논의는 역사적으로는 전쟁 지역과 분쟁 지역에서의 생태파괴, 그리고 에코사이드 등 대규모 자연에 대한 파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일종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를 인간 대상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 생태평화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다. 또한 평화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동물관계, 혹은 포스트휴먼적 관점에서 인간만의 평화가 아니라 인간너머(more than human) 존재들과의 공존, 평화를 논의하는 문제의식도 심화되고 있다.

한편 동물행동학에서는 인간-동물간의 평화만이 아니라, 동물의 무리에서는 평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것을 생물체의 본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 이 글은 인간중심적 관점의 생태평화론부터 탈인간중심적인 생태평화론까지 개념을 고찰하고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생태평화가 단순히 평화론에만 입각한 것이 아니라, 안보의 문제, 정의의 문제와 더불어 평화의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임을 주장한다.

II. 생태평화의 세 영역: 안보, 정의, 평화

생태평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영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안보, 정의, 평화의 세 기둥의 측면으로 생태평화를 구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생태평화는 안보, 정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평화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소극적 평화론에서 논의하던 것은 안보와 정의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본다면, 적극적 평화의 관점을 채택하면 생태평화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안보와 정의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인간 너머 존재의 존재와 공존 자체가 문제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평화는 보다 지속가능한 공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시말해, 생태평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물안보와 생태정의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그후 더 발전하여 더욱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물안보(biosecurity): 원헬스(One Health)와 공통의 위험 관리

생태정의: 환경정의, 기후정의, 다종간(multispecies) 정의(에코사이드, 동물권, 자연의 권리)

생태평화: 생태와 지속가능발전의 공존, 대안적 자연이용, 평화 만들기

1. 생물안보

생물안보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인간-동물-생태계가 하나의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생긴 피해와 위험이 동물 혹은 생물 영역만의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확장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는 최근 원헬스(One Health), 혹은 행성적 건강 등의 보건학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생태와의 공존을 단순히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인간-동물-환경의 관계 속에서 원헬스의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공중 보건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흐름 중 하나이다. 인간의 질병을 위한 국제기구로 WHO가 있다면, 세계 동물 감염병을 위해서는 세계수역국인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국제수역사무국’으로 불리기도 함)가 있다. OIE를 필두로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공중 보건 체계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헬스 원웰페어(One Welfare)의 개념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원헬스의 개념을 통해 건강의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하고 있다. 원헬스의 개념은 인간-동물-환경이 하나의 건강의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건강의 문제 역시 그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 환경의 건강을 한 틀에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한국에도 원헬스 논의는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원웰페어, 인간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를 한 틀에서 사고하는 흐름도 등장하고 있다. 의학에서는 이미 원헬스, 에코헬스, 행성의 건강(planetary health)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체계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은 평화의 기본이 되는 안보가 단순히 인간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이런 논의를 인간-동물-환경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토양파괴, 산성화, 수질오염, 생물농축(다이옥신, DDT 계통, 살균제 계통들에 대한 논의) 등 다차원적으로 지구 행성에서 평화로운 공존이 깨지는 생물안보의 관점으로 다

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원헬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발전 시기에 잘 알려진 미나마타병 등 공해병의 문제와 베트남전쟁 당시의 고엽제 문제가 있다. 미나마타병은 질소 생산을 위해 수은을 촉매로 쓰며 바다에 수은이 흘러 들어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류에 축적된 수은이 생태사슬을 따라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병이다. 물고기를 먹는 고양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점차 신경계 계통의 이상이 발생한 것이 보고되었다. 그래서 미나마타 지역에서 고질이 발견되었을 때 고양이가 중심을 잃고 춤을 추는 듯한 일들이 있었고, 이는 이후 신경계 계통에 문제가 발생한 것임이 알려지게 되었다. 미나마타병은 피해자들의 호소와 저항, 지난한 과정을 거쳐 공해병으로 인정되었고, 바다-어류-고양이-인간 등의 복합적 관계에 독성 물질이 축적되었을 때 큰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Rabinowitz & Scotch 2009)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고엽제 살포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토양에 농축된 다이옥신은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어서 고엽제가 주로 살포되었던 남부 베트남 지역에서는 기형아 출생에 대한 걱정이 상당해서 산전 검사 등을 많이 한다고 한다. 토양에 농축된 다이옥신은 토양을 통해 여러 식물, 먹거리 등에 흡수가 되고, 이는 다시 인간에게 먹이사슬을 통해 전파된다. 이런 위험은 한번 발생하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토양에 농축이 되어서 여러 세대를 거쳐 문제(Zierler 2011)를 야기한다.

이런 생물안보의 문제는 방사능의 문제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생물학자는 체르노빌 지역의 동물들을 조사해서 유전적으로 변이가 이루어졌음을 밝혀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염수를 통해 방사능이 바다로 노출되어서 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하고 수산업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은 또한 현세대에 뿐 아니라, 후속 세대에게까지 유전자 변형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의도적인 차원, 혹은 부수적 차원의 피해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 역시 생물안보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시기 미군기지에 생물무기의 실험실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미군부대에 리신, 포도상구균, 보툴리눔 등 맹독성 생화학물질이 페덱스 우편을 통해 부산항 8부두로 반입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는 이후 미군의 생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인구 350만의 대도시에서 미군은 생화학무기 실험실을 구축하고, 이

는 전혀 한국 정부의 통제 밖인 상황이다. 특히 부산항 8부두에 미군의 생물학무기 실험실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지역의 마을 운동가들에 의해 알려졌다. 그 문제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쟁점화하여 10만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는 부산시의 관할 범위라며,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다시 수면위로 가라 앉았다. 이 주피터 프로젝트는 한국의 미군기지가 전 세계 미군기지가 취급하는 생물무기 방어전략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엄청난 생물학적 위험이 있는 문제들이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감시없이 한국의 미군기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정희상 2021).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한 엄청난 위험일 뿐 아니라, 전세계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을 야기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실험이 한국의 미군기지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영토에서 이런 파국적 재앙을 야기하는 살상무기의 개발이 한국인들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질병과 생태계의 위험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생태계 전체의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안전의 개념을 인간사회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자연, 동물, 식물 등 생태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의료와 생태학 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불확실한 생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물안보에 입각해 평화를 구상할 필요가 있고, 생물농축(biological concentration)을 야기하는 방사능, 화학물질,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인식하며 이를 평화의 의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위험이 현재 각기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통합적인 방식으로 관리나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평화학에서는 생물안보란 관점에서 인간-비인간 등 생태계 차원으로 존재하는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 생태정의

1) 환경정의, 기후정의와 다종간 정의

근대사회에서 환경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영역과 정의의 영역으로 전환된 것은 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2011)의 영향이 크다. 카슨은 살충제로 인해 조용해진 숲에 대해 논의하며, 그렇다면 벌레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한다. 살충제로 인한 이익, 위험에 대한 복잡한 결정과 책임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를 질문했다. 카슨의 논의를 통해 단순히 자연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근대화/산업화로 인한 피해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다. 그리고 카슨은 적극적으로 그런 결정을 누가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의 문제와 책임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통해 인간의 편리를 위한 화학약품 사용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등장했고 이는 환경정의와 환경운동, 그리고 환경정책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점차로 환경이라는 영역이 사회의 제도 속에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립되었다.

또한 이런 환경정치에서는 실제적인 환경정의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는 열악한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으로 고통받는 것을 문제제기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규모 환경파괴가 발생하는 곳이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이기에, 인간사회의 차별과 위계가 환경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지점에 대한 논의들이 존재한다. 이것은 기후변화 등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글로벌 북반구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재난이 전지구적 남반구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등이 있다. 그래서 기후난민 등에 대한 적극적 개념화와 제도 등을 통해 기후위기 속 환경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 의식, 환경 위험에 대한 불평등한 피해의 정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기후정의를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다양한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긴밀히 연결되어있다는 깨달음 덕분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 재난이 단순히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재난을 야기하고 심화한다는 논의들이 특히 2005년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 이후 증가(Knappe 2022)했다. 또한 기후정의의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에는 분배나 인정이냐라는 논의가 존재한다. 그래서 환경정책연구원에서는 기후정의에 대해 연구하며,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대해 구별해서 기후정의의 문제(한상운 2019)를 다루었다. 기후정의의 문제가 등장하면 불평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된다. 불평등이 기후변화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공동체와 국가들일수록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덜 사용하는 측면이 있다. 두번째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다르게 느끼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에서 주변적 집단은 배제가 된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실제적 피해와 취약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의의 차원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기후부정의(injustice)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급, 젠더, 인종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해야 하며, 공동체, 국가단위에서의 환경적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정의의 원칙에서 기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배 정의와 인정의 문제에 대해, 참여와 역량(capability)의 문제를 통해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은 기후변화의 문제를 기후정의/부정의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Harlan et al. 2015)한다. 현재 기후정의 논의는 다양한 팜플렛의 형식으로 출간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후정의 선언: 우리는 실패한 권리가 없습니다>(우리 모두의 일 2020), <기후정의 선언 2021>(기후정의 포럼 2021) 등이 있다. 현재 과학계에서 합의된 기후변화의 문제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로 전환시켜 가기 위한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기후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차원의 관계와 격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탄소배출의 차이, 원인과 책임과 피해의 편차 등 공간적 불균등의 문제가 기후변화에서는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북반구/남반구 등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대간 정의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이다. 생산과 소비를 위해 기후위기가 촉발되었지만 미래세대는 이런 기후위기의 위해와 파국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후정의의 문제를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의 차원, 한반도에서 남북의 관계에서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피해자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들 역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을 목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다종간 정의(multi-species justice)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인간의 발전과 번영의 시간 동안 멸종되어간 종들간의 인간-비인간의 불평등 문제를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등은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셀라마이어(Celermajer)라는 호주의 사회학자는 기존의 정의의 논의를 인간-동물-생태를 포함한 다종간 정의의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박효민&주윤정 2021)했다. 이렇듯 기후정의와 다종간 정의는 인간세계 내의 다양한 균열, 그리고

비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확장하고 있다. 셀라마이어는 다른 여러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에서 다종간 정의의 개념은 인간중심적인 정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나아가 정의의 개념이 모든 생물종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불가능하며, 인간 세계에서조차 사실 그런 인식은 폭력과 침묵을 통해 가능했던 성장의 신화가 더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래서 현재의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인간의 제도는 이제 우리가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다양체 세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재구성이 되어서 지속적인 변화,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스템,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Celermajer et al. 2021, 132).

2) 에코사이드와 회복적 정의

정의의 차원에서는 자연 혹은 생태에 발생한 폭력을 처벌하고, 혹은 이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범화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환경운동에서는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원용하여 에코사이드를 국제법의 규범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제노사이드란 개념이 가능해진 것은 직접적 피해 입증을 넘어 집합적 차원의 학살을 분석가능하게 했고, 이를 계기로 반인도주의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제법 진영에서는 에코사이드란 개념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다섯 번째의 범죄로 만들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중이다. 에코사이드는 일단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특정 영토에서 인간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생태계에 대한 상당한 피해, 파괴, 상실이 발생해서, 그 영토의 거주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위협에 처해지거나 혹은 위협에 처해질 경우, 이를 국제법에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전지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환경법을 국내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룰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에코사이드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나라들, 저개발 국가들에는 부패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에코사이드 문제를 단일 국가체계 내에서는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국제형사법을 통해 환경에 대한 법률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가능하다. 사법적 개입을 통해 대규모의 환경 파괴에 대한 원상복구, 회복적 조치가 가능하

기 때문이다.

에코사이드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생태계에 대한 엄청난 파괴를 일컫는 것으로, 이런 파괴는 인간에 의해서나 혹은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해서 그 영토내의 거주자들이 평화롭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법적 제도 내에서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는 규범이 정립되고 있다. 에코사이드에 대한 문제의식이 등장한 것은, 환경에 대한 보호와 실천이 대체로 시민의 영역에서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성찰 때문이다. 그 대응들은 대규모 파괴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파괴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저항이 있어도 회사들은 이를 소송을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에코사이드의 범죄화로 인해 대규모 파괴에 대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일종의 도덕적인 기본선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에코사이드를 범죄로 규정하게 하는 것은 다른 생태관련 국제협약들이 강제성이 없는 것과 달리, 행동을 좀더 강력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실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법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장치에 대해 상당히 새로운 방식의 시각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에코사이드의 범죄화는 기존의 권리중심적 담론, 개체, 종단위로 사고하는 것과 달리, 가이아, 생명의 그물망 등 생태계 전체에 대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전체적인 관계망 속에서 인간-자연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또한 에코사이드는 인간, 생태,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 더욱 복합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측면이 있다.

현재 환경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취약하고 탈규제와 자발적 준수(시장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을 제공)한다는 시장적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들(규제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규제하는 사람들과 이해관계를 같이)이 존재하며, 파괴적 행위를 “사소화”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지구적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초국적 범죄는 이런 지역의 규제 역량을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Higgins 2012; 조효제 2022; 김재운 2022)

에코사이드는 과거의 가해를 처벌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측면이 있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형사법 체계내에서 기존의 응

보주의적 입장이 아닌 방식으로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의의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의 회복, 안전함의 제공, 그리고 과거의 부정의(injustice)에 대한 교정 등을 핵심 원칙(제어 2019)으로 하고 있다. 생물에 대한 파괴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가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최근 과거사의 일환으로 원주민들의 썰매개들이 살쳐분된 것에 대해 과거사 진상조사를 시작하고,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를 진행하고 있다. 과거사 혹은 이행기 정의의 문제가 인간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물 등 생태적 문제까지 포함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최근에 다니엘라 셀라마이어라는 호주의 인권연구자 역시 다중간 정의의 측면, 혹은 옴니사이드란 개념을 통해 인간이 생태와 자연에 행하는 문제와 폭력 등을 인식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Cellamajer 2021A)

셀라마이어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논의를 동물과의 관계, 인간너머의 존재에게도 적용하려 한다. 이행기 정의를 인간너머에 적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대표적인 논지는 인간 너머 존재의 경우에는 지각 능력, 과거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별 소용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셀라마이어는 이런 동물들에게 행해졌던 과거의 잘못을 해결해가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변화를 위한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인간들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책무를 인정하며, 다시는 이를 저지르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보다 좀더 적극적인 시각에서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피해자나 가해자의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다. 한 예로 호주 지역에서 물고기를 복원하는 단순히 물고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주 식민주의에 의해 파괴된 여러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개별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보는 것에서, 존재론적 단위로 관계에 주목하는 것으로 관계가 전환된다. 관계성에 입각한 존재론에서, 이런 이행기적 정의는 단순히 피해자나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존재 양상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Cellamajer & O'Brien 2021, 136) 셀라마이어는 이런 측면에서 인간너머의 존재를 위한 이행기 정의는 생태중심적이거나 포스트 휴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자연의 권리와 탈식민주의적 평화

한편 기존에 억압되었던 자연의 목소리, 동물의 목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과 관련해서는 동물권에 대한 관심과 사회운동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법 개정안을 통해 동물이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인간과는 다르지만 하나의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려는 흐름이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는 동물을 지각을 갖춘 존재로 인정하고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기입하려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은 자연의 권리를 헌법에 기입하고 있기도 하다. 공동체의 성원의 범위와 평화의 대상을 인간을 넘어 다양한 생명체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는 미국의 법학자가 나무의 원고 적격성에 대해 논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헌법 체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은 남미에서 부터이다. 자연의 권리가 실제로 법적 체계에 기입되는 것은 에콰도르 헌법(2008)에 지구(대지)의 권리를 인정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보통 파차마마로 알려져 있는데 “자연과 조화하면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녕(well-being)을 추구할 것을 명하고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서 “자연의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양식의 공존질서”를 정립함으로써 ‘Buen Vivir’, 곧 좋은 삶의 방식(the good way of living)을 성취하고자 하는 에콰도르 국민의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는 독립된 장(헌법 제7장)으로 규정 “(박태현 2020)하고 있다.

에콰도르 및 남미,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등에서는 자연에 법인(legal person)의 자격을 부여하는 논의들이 규범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자연의 권리는 주로 법체계 기입(헌법), 법인격 인정, 혹은 자연물을 원고로 한 소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어떤 측면에서는 식민화를 겪은 나라에서, 이전의 원주민(indigenous people)들이 자연과 맺고 있던 관계, 공생의 관계를 승인하고, 이를 법적 규범 체계의 일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 상류 등에서 자연에 대한 파괴가 엄청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맺어온 다양한 삶의 방식과 문화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원주민, 그리고 다양한 지구상의 공동체가 인간과 자연의 관

계를 구성해왔던 오랜 지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근대의 지식을 넘어 탐색해 보기 위함이다. 원주민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맺어왔던 삶의 방식은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이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의 권리를 법제화하거나 혹은 원주민들의 자연이용방식에 대한 인정은 근대 이전 사회에서 존재했던 자연과의 관계는 여지껏은 미신이나 야만, 그리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화 이전 인류가 자연과 공존했던 방식을 통해 ‘오래된 미래’를 찾고, 그것을 규범, 새로운 질서의 근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한국에서는 자연물 자체가 원고 적격성을 인정 받은 사례는 없다. KTX 건설 당시의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산양을 원고로 한 소송이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이들의 원고 적격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천성산에서 도롱뇽에 대한 소송을 한 지율 스님의 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환경운동에서도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비합리적 운동이라 상당한 비난(주윤정 2020)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 기차는 다니지 않는 전용 독점 철도로 서울로 이어지는 고속 열차인 KTX가 만들어진 이후, 지역의 수많은 문화와 경계가 서울 중심적인 방식으로 흡수발전되어간 것을 생각할 때, 도롱뇽 소송은 단순히 도롱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대의 속도와 일극주의에 대항해 고유의 세계를 주장하는 운동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하나의 세계(one world)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사라짐에 대해 저항하는 운동이었던 측면이 있다. 자연의 권리는 단순히 자연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존 로라는 영국의 과학기술학자는 하나의 세계로 단일화하여 수렴시키려는 것을 단일 세계의 추출주의적 세계관이라 비판한 바 있다(Law, 2015). 이런 추출주의는 하나의 단일한 세계가 다른 세계를 모두 흡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의 세계를 배타적(exclusive)이고 유일한 것으로 설정하고, 그 경계 너머에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추출주의는 자연을 주인이 없는 땅이라 인식하며,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은 단일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팽창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세계를 모두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추출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다중주의적 우주 관념이 필요하다. 원월드의 관점에 의하면 추출주의는 상이한 다중 우주를 하나로 추출하여 획일화해 가

는 과정이다. 원월드를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존 로는 우주는 단일 세계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실체가 상호작용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문화, 사회, 그리고 신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너머의 평화는 하나의 세계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평화의 가능성을 모색(주윤정 2022)하는 것이다.

3. 생태평화

1) 분쟁지역과 인간너머의 평화 만들기

전쟁이 발생하고 인간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갈 경우, 생태적인 영향이 다층적으로 발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생존과 복지가 우선하기에 이전에 존재하던 생태 문제들은 다소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는 메콩강의 오염, 중국 댐의 영향으로 수량이 축소되어 강 돌고래의 보전에 관한 논의가 생태적 이슈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지만, 현재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 이런 환경보전에 대한 목소리는 힘을 잃고 있다. 인간의 목숨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른 동물과 생태계의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 이는 극심한 내전으로 국토가 상당수 파괴되었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조류학자인 원병오가 주장했듯이, “전쟁 때문에 야생동물이 급감했다. 군인들은 희귀한 두루미, 고니, 황새를 총으로 잡아 식량으로 삼았고, 연습 삼아 노루를 사냥하거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농가에서는 쥐의 천적인 족제비의 씨를 말렸다. 모피 수백만 장이 미국으로 수출되었지만, 그 때문에 쥐가 늘어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야생동물은 멸종하게 될 것이다.”(엔도 키미오 2018) 이는 전쟁시기에 음식이 부족하기도 했고, 또한 동물들이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폭력의 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상당히 파괴한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경우에 1953년부터 2005년까지의 종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1970년대 종다양성은 급격히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총이 증가했고, 야생동물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사냥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과 분쟁이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Loucks, et al.

2009). 그래서 분쟁 지역에서 평화가 구축된 이후 동물과 공존을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이 등장하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다큐 시리즈인 〈로그 트랩〉에서는 분쟁 지역 전문 기자인 밥 우드러프가 자신이 10여년전에 취재했던 분쟁 지역을 아들과 함께 방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분쟁지역에서 오랫동안 취재를 했던 기자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자신이 인간이 고통과 참상을 경험한 지역을 돌아보는데, 각 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생태관광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Deichman 2020)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물다양성은 분쟁 이후 사회와 평화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동물보호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환경 파괴, 생물다양성의 축소 자체는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생물다양성의 지표란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깨끗한 공기, 물과 식량의 보급 등의 삶의 질의 지표일 수 있다. 또한 이전의 내전에서 게릴라 등으로 싸웠던 이들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일하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가 야생동물 보호지에 보호관으로 취직을 하거나, 콜롬비아에서는 게릴라 군이었던 사람이 시민과학자로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평화만들기, 평화구축 프로젝트에서 생물다양성은 아주 중요한 역할(Schulte 2022)을 할 수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평화만들기의 구체적인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건설의 과정은 단순히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복원, 보전을 통해 구체적인 평화의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전쟁, 분쟁과 평화만들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DMZ는 세계적으로 항상 조명을 받는다. DMZ지역, 특히 철원과 연천 인근에는 겨울철새인 두루미류가 찾아온다. 현재 중국의 난개발로 인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두루미의 서식지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철원과 연천은 두루미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공간이 우연적으로 다양한 생물체에게 일종의 생태적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화학에서 전쟁과 생태의 관계, 이후 회복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 생태학의 연구분야는 평화와 안전(security)의 연구를 결합하려 하는데, 전쟁이 환경에 대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복합적으로 연

구하고 있다. 주요 전쟁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혹은 기후변화와 생태계의 자원의 문제가 전쟁을 어떻게 야기하는지, 전쟁 이후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연구, 전쟁 이후 회복의 프로젝트 등을 복합적으로 연구(Machlis 2009)하고 있다.

2) 동물행동학에서의 평화만들기

평화 구축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동물행동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만들기에 대한 연구들이다. 동물학자인 드발은 영장류 등을 살펴보면서, 동물에서 공격성은 등장하지만 공격성은 폭력과 다른 것이며, 화해의 행동이 공격성만큼이나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콘라드 로렌츠의 동물행동학적 연구 이후 공격성에 대한 논의가 동물의 일종의 본성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런 공격성에 대한 논의는 평화학에도 상당한 함의가 있었다. 로렌츠의 공격성이 생물의 본성이라는 주장은 동물행동학을 넘어 인문사회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서 전쟁이란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런 로렌츠의 논의를 평화학의 측면에서 비판한 김이라는 평화학자는 로렌츠의 논의는 갈통이 지적인 구조적 폭력의 논의를 포괄할 수 없음에도 이런 논의로까지 확장되어 해석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을 했다. 로렌츠의 논의는 전쟁의 기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전제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생물학적이거나 행동학적 연구가 인간과 동물의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제도적, 문화적으로 창출한 영역을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Kim 1976)했다. 인간이 제도화한 폭력을 분석하기에는 공격성이 생물체의 본능이라는 가설이 적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로렌츠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동물행동학에서도 제기되었다. 프란츠 드발은 공격성과 폭력을 동물의 본성으로 보는 연구와 다른 시각을 제공한 것이다. 그것은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폭력성을 본능으로 논의하는 것을 넘어 화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원숭이 등에게 내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였다. 그것에 따르면, 원숭이와 영장류들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정교한 행동전략을 만들어간다. 원숭이들은 인근의 군집과 해결해가는 방식도 있고,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전략도 갖고 있다. 서로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한 행위들이 존재한다. 또한 침팬지 사이에는 전략적인 화해도 많이 나타나는데, 싸움을 했던 암컷 침팬지들이 동물원 사육사가 나타나기 전에 서로 키스하고 포옹, 화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이런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게 중요한데, 공격적인 감정에서 우호적인 감정으로 전환해가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 공격적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웃으면서 서로 품어주는 활동을 하기도 하다. 이런 화해의 제스처가 나타나는 것은 신체적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갈등 이후 평화의 제스처를 통해 관계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동물에게서 화해의 행위는 특정한 방식으로 나오는데 협동적 행위, 물건을 나누기, 털골라주기, 사과, 상징적인 선물 등으로 발현되어 나온다. 그래서 평화란 것이 인간만의 행위가 아니라 동물계에서도 존재하는 행위란 것을 보여준다(드발 2007). 드발에 의하면 화해는 과거 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미래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과거의 사건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려의 정도에 따라 화해가 이루어진다. 드발은 인간의 공격적인 본능과 동물의 왕국의 무자비한 투쟁만을 강조하는 생물학자들의 논의와 달리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협상, 다양한 관계맺기, 유화적 제스처와 접촉 패턴, 화해 등을 일종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본다.(드발 2007, 338) 드발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동물의 본능에 기반해 행하는 행위로 보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동물의 다양한 행위의 양상을 확장하는 논의를 전개했다.

이런 드발의 논의는 연장류만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이타적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벨기에의 동물행동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스프레(Despret)는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 서식하는 조류 중 남부얼룩무늬 꼬리치레와 이 종을 연구한 동물 행동학자 아모츠 자하비의 연구를 통해 이를 언급한다. 자하비는 관찰을 통해 이 새들이 복잡한 상호작용, 이타성, 관계성을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다양한 언어와 위계 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데스프레는 자하비가 새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살펴봄에 자연 과학자들의 작업이 이데올로기와 정치성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다윈과 크로포트킨을 예로 들자면 동일한 동물의 행위를 관찰하더라도 다윈은 경쟁을 중시한 데 반해 크로포트킨은 이타성과 연대를 강조했다. 새들의 행

위를 경쟁 중심으로 설명하는 다른 동물학자들과 달리, 자하비는 이타성, 유희 등 다양한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성을 탐구했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 역시 인간의 관점에 의거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시각을 강조할 경우와 협력, 평화 등을 강조할 경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데스프레는 강조하고 있다. 동물의 본성에서 공격성과 폭력을 우선시하는가 혹은 협력과 상호부조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은 관찰자인 인간의 목적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을 데스프레는 강조(Buchanan 2015)했다.

Ⅲ. 나가며

한반도의 경우에는 DMZ 접경지대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북한과의 생태보전 협력, 국토에 대한 난개발 과정에서 생태평화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평화체제가 구축과정에서, 생태화와 군사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접경지대를 어떻게 생태적 방식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안적으로 개발할지는 중요한 미래의 과제이다. 또한 북한과 다양한 생태보전 협력의 과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나갈 것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철새 등 동물들은 이동하고 있기에, 생태적 측면 혹은 탈인간중심적 관점에서는 국경은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근대 이후 지나친 난개발로 인해, 인간-동물의 평화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 근대 이후의 각종 개발로 동물들의 핵심 서식지는 파괴되었으며, 다양한 생물체들이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개발 패러다임이 인간-동물간의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미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성찰해, 탈인간중심적인 생태평화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다양한 이질적 관계 속에서, 위협을 서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원주민들의 근대사회 이전에 맺고 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문화 속에서도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탐구, 사상적 탐구를 통해 생태평화의 가능성을 오래된 미래에서 찾는 것 역시 중요할 것이다. 결국 생태

문제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이 맺어온 관계, 근대적 관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다른 방식의 공존의 관계를 통해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단일 세계로 획일화되어, 하나의 가치를 위해 다른 가치와 존재들이 자원으로만 동원되는 추출주의적 태도를 막아내며 다양한 세계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평화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평화만들기 등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이 글에서 생태평화와 관련해 고려해볼 여러 쟁점과 주제들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생물체와 함께 평화에 대한 지평을 열어갈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 쟁점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주요정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다. 장애인의 역사 연구에서 출발해 인권의 역사와 인간-동물 관계를 연구했고, 현재 '느린 재난'을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저서: 『보이지 않는 역사. 한국 시각장애인들의 저항과 연대』.

참고문헌

- 기후정의 포럼. 2021. 『기후정의 선언』. 2021. 서울: 한터재.
- 김재윤. 2022. “국제범죄로서 ‘생태살해(ecocide)죄’의 도입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34권 1호, 141-165.
- 드발, 프란스. 2007. 『영장류의 평화만들기』. 김희정 옮김. 서울: 새물결.
- 맥어스킬 윌리엄. 2023 『우리는 미래를 가져다 쓰고 있다: 가장 낙관적인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영래 옮김. 서울: 김영사.
- 박명규 외. 2013. 『녹색평화란 무엇인가』. 서울: 아카넷.
- 박태현. 2020. “지구법학과 자연의 권리”. 『지구를 위한 법학』. 강금실 외 역음. 서울: 서울대 출판문화원.
- 박효민, 주윤정. 2022. “옴니사이드와 다종간 정의: 다니엘라 셀레마이어의 호주 산불에 대한 내러티브 Danielle Celermajer (2021) Summertime: Reflections on a Vanishing Future”. 『과학기술학연구』 제22권 1호, 223-230.
- 엔도 키미오. 2017. 『아리랑의 파랑새: 조류학자 원홍구, 원병오 부자 이야기』. 정유진 옮김. 서울: 켄앤켄.
- 정희상. 2021. “원폭만큼 치명적인 미군의 부산항 세균실험” 시사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42>(최종검색일 2023/5/1)
- 제어, 하워드. 2019. 『우리 시대의 회복적 정의: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손진 옮김. 서울: 대장간.
- 조효제. 2022.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서울: 창비.
- 주윤정. 2020. “경이와 돌봄의 정동: 천성산과 제주의 여성 지킴이들.” 『젠더와 문화』 제13권2호, 79-113.
- 주윤정. 2022A “스텝게르스의 가이아와 강정에서 고사리 꺾기: 이야기, 실천의 생태학, 관심을 기울이기.” 『과학기술학연구』 22(1), 63-83.
- 주윤정. 2022B “추출주의와 멸종, 그리고 에코사이드.” 『과학기술과 사회』 3호.
- 카슨, 레이첼. 2011. 『침묵의 봄』. 김은령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 프란치스코. 2015. 『찬미받으소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한상운 외. 2019.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 Randall, Amster. 2015. *Peace Ecology*. London” Routledge.
- Buchanan, Brett. 2015. “The metamorphoses of Vinciane Despret.” *Angelaki*. 20 (2):17-32.
- Celermajer Danielle. 2021A. *Summertime*. Sydney: Penguin.
- Celermajer, D.& O’Brien. 2021 “Alter-transitional justice; transforming unjust relations with the more-than-human.” *Journal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12, 125-147.
- Celermajer, Danielle, et al. 2021. “Multispecies justice: theories, challenges, and a research agenda for environmental politics.” *Environmental Politics* 30:1-2, 119-140, DOI: 10.1080/09644016.2020.1827608
- Chakrabarty, Dipesh. 2021. *The Climate of History in a Planetary A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itchman, Beth. 2020. “National Geographic’s Rogue Trip Brings the Ultimate Father-Son Adventure to Disney+.” *The Official Disney Fan Club*. <https://d23.com/bob-and-mack-woodruff-interview-about-rogue-trip/> (최종검색일: 2023/5/1)
- Higgins, Polly. 2016. *Eradicating Ecocide: Laws and Governance to Stop the Destruction of the Planet*. London: Shephard-Walwyn.
- Kim, S. S. 1976. “The Lorenzian Theory of Aggression and Peace Research: A Critique.” *Journal of Peace Research* 13(4), 253–276.
- Knappe, H., & Renn, O. 2022. Politicization of intergenerational justice: how youth actors translate sustainable futures. *European Journal of Futures Research* 10(1), 1-11. <https://doi.org/10.1186/s40309-022-00194-7>.
- Law, John. 2015. “What’s wrong with a one-world world?”,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16:1, 126-139, DOI: 10.1080/1600910X.2015.1020066.
- Machlis Gary. 2009. *Warfare Ecology: A New Synthesis for Peace and Security*. Springer
- Rabinowitz P, Scotch M, Conti L. 2009. “Human and animal sentinels for shared health risks.” *Vet Ital*. 45(1):23-4. PMID: 20148187; PMCID:

PMC2818012.

Schulte, Henrike. 2022. “Do mention the war: Why conservation NGOs must speak out on biodiversity and conflicts.”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https://ceobs.org/do-mention-the-war-why-conservation-ngos-must-speak-out-on-biodiversity-and-conflicts/>. (최종검색일: 2023/5/1)

Zilerler, David. 2011. *The Invention of Ecocide: Agent Orange, Vietnam and the Scientists Who changed the Way We Think About the Environment*. Athens :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bstract

More than Human Peace Ecology, From Security, Justice to Peace Making

Joo, Yunjeong^{*}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re concept of ecological peac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Ecological peace is a critical concept that is newly emerging in peace studies. In Korea, interest in ecological peace is increasing in relation to the ecological use of the DMZ, but the concept is not well developed yet. The concept of ecological peace began with deepening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peace studies through the awareness of the ecological problem in peace studies. This article consists of biosecurity, ecological justice, and peace ecology as components of ecological peace, and introduces each concept and case based on these. Biosecurity and ecological justice have a negative aspect of peace, and ecological peace can be seen as having implications for positive peace that actively builds peace away from violence and destruction. In addition, while previous discussions were based on the viewpoint of viewing the environment as a resource used by humans, this articl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more than human peace ecology by considering various non-human organisms.

Key Words: Peace Ecology, Biological Security, Ecological Justice, More than Human, Multispecies Justice

논문투고일: 2023. 05. 01.

논문심사일: 2023. 05. 05.

게재확정일: 2023. 05. 10.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araby@pusan.ac.kr